



2019년 1월 6일(제910호) 주님 공현 대축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주님의 공현과 우리의 삶”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널리 알려졌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목동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내신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례력 안에서 각각 다른 날짜에 기념하게 되었고, 동방박사의 예수님 방문은 오늘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의 중심적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복음에 나온 헤로데와 같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아마도 동방박사의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었고, 이 여정 안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1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복음의 동방박사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며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2독서의 내용처럼 자신이 깨달은 하느님의 뜻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주님의 공현이라는 것은 결국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을 찾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 알아보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나 공동체 기도를 통해, 성경을 읽거나 강론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미사에 참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과, 발견을 통한 주님의 공현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은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과 같이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동방박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긴 연설로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랑의 삶을 통해 그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결국 주님의 공현은, 주님의 드러내 보여주시는 최후의 만찬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닿아있지 않나 묵상해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영근(디나월) 신부  
민포대(해군 2필대)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60,1-6  
**회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 시** 에페 3,2.3ㄴ.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마태 2,1-12  
**영 성 제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박경진 프란치스코



성인명: 박경진 프란치스코 (Francis)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835-1868년

1835년에 태어난 박경진 프란치스코는 장성한 다음 오(吳) 마르가리타와 혼인하여 충청도 청주에서 살았다. 그들 부부는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자, 안전한 곳을 찾아 아들 사 형제를 데리고 진천 절골(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로 이주하여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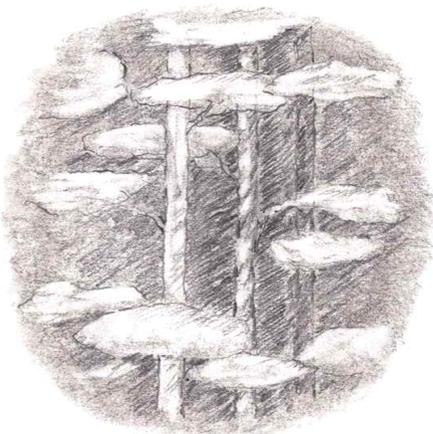
박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절골에서 2년가량 평온하게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1868년에 이르러 박해가 더욱더 거세어지면서 다시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그해 9월 5일(음력 7월 19일)에는 마침내 경기도의 죽산 포졸들이 절골로 들이닥쳤다.

이때 박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포졸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산중으로 피신하던 도중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중에서 박 프란치스코의 아내 오 마르가리타는 어린 자식을 업고 산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어 많은 매를 맞았다. 한편 가족의 사정이 궁금해진 박 프란치스코는 동정을 살피려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동네의 한 비신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비신자는 박 프란치스코에게 ‘내 집에 자면서 동정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며 안심을 시키고는 밤중에 뒷문으로 빠져나가 포졸들에게 박 프란치스코를 밀고하였다.

박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체포되어 아내 오 마르가리타와 함께 죽산으로 끌려갔다. 박 프란치스코는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동생인 박 필립보와 맏아들 박 안토니오에게 소식을 전하였는데, 특히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가 들어 있었다. “어린 조카들을 잘 보살피면서 진정으로 천주님을 공경하고, 천주님께서 안배하시는 대로 순명하여 나의 뒤를 따라오도록 하여라.” 박 프란치스코와 오 마르가리타 부부는 이후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런 다음 1868년 9월 28일(음력 8월 13일) 죽산에서 함께 순교하였으니, 당시 박경진 프란치스코의 나이는 33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어둠의 색

빛이 사라진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세상.

고독, 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

어둠 그 속에서  
 만나는 당신.

# 상화이야기

## 동방박사들의 경배



핀틸레 디 피브리아노,  
1423년 작  
패널 위 템페라화,  
203x282cm  
우피치 갤러리,  
이탈리아 피렌체

이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 중 하나인 스트로치가문이 주문한 제단화로, 실제 금박과 보석들을 사용하여 표면 및 그림이 장식된 이 그림은 여러가지 스토리가 결합된 인상적인 작품이다.



(그림 상단 왼쪽, 하늘의 별을 발견하는 동방박사들) (그림 상단 오른쪽,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동방박사외 그 일행들)

그림의 상단 가장 왼쪽에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목격하는 것, 중앙에는 헤로데궁을 방문하는 것 (헤로데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지시를 한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동방박사들과 그 일행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데, 동방박사가 성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장면이 그림의 전면에서 그려진 장면이다.

동방에서 온 이국적인 인물들답게, 그들의 의복과 말을 장식한 소품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외국의 동물 (아프리카의 치타 및 원숭이 등)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그림은, 이 당시에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그림이었다.

<다음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공헌 대축일: 성요한 이긴승 신부

#### ◆ 교구장 동정

- 2019년 사제 피정  
때·곳: 1월 7일(월)~11일(금),

전의 정하상 교육회관 / 안양 아론의 집

#### ◆ 군중부원회 신년미사

때·곳: 1월 7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